

## 12강 새계명 (요한복음 13장)

### 오늘의 포인트

- 세족식의 바른 의미 이해
- 새계명의 바른 의미 이해
-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함

### 문맥 이해

#### 13~17장의 의미

- “요한복음이 성경의 성소라면, 요한복음 13~17장은 성경의 지성소다.”
-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하늘에 관한 말씀, 새계명,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의 관계, 기도의 주제를 다룬다.
-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 특히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볼 수 있다.

####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특징 변화

- 전반부(1~12장): 표적이 등장하고 설명이 이어지는 형식
- 후반부(13~21장): 설명이 주어지고(13~17장) 이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18~21장) 주어진다.

### 13:1의 의미 =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요 13:1)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시점

유월절 전: 때가 왔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고(1:36)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죽으신다.  
‘세상’ =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

### 성경에서 ‘세상’의 용례

-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 2)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요 3:16)
- 3)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
  -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요 1:10~11)
  - 빛 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3:19)
  -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요 15:18~21).
  - 그리스도인이 속할 수 없는 세상(요 17:14)

세상과 거기 속한 가치를 미워해야 하는 세상(요일 2:15~16).

### ‘자기 사람들’: 교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6:37,44)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자들(10:11,15)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비가시적 교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 ‘사랑’: 구원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사랑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한 것은 구별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어 사랑하시나(딤후 2:4),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의 비참한 실패의 끝까지, 우리 방향과 배반의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의 최대한도로 =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실패와 죄는 주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

### 전제와 결론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전제에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 발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1~11)

오해: 윤리와 속죄의 혼동

### 사건의 본질

일차적으로 윤리적 모범이 아니라 주님의 속죄 사건의 의미를 드러냄이다.  
주님은 세족식을 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사제들이 평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으로 지키는 세족식은 위선이다.”  
→ 의식으로 모든 것을 때우는 것을 비난  
레온 모리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본이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다.”

[이 두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미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찰스 웰던이 1896년에 쓴 소설의 제목)  
Vs.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 십자가를 위한 무대준비가 완료되다(2)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영적 차원—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가룟 유다: 인간적 차원

이 구절은 세족식의 서론으로서, 세족식이 단순한 윤리적 모범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 빌립보서 2:5~11과의 비교

요한복음 13:1~10	빌 2:5~11	의미
“자리에서 일어나”(4)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6)	섬기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겉옷을 벗고”(4)	“자기를 비워…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8)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4)	“종의 형체를 가지사”(7)	전형적인 종의 행동과 태도를 취하셨다.
“대야에 물을 떠서-쏟아부어-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5)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8)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냐 외국인 종이 하는 일이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12)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9)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결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덕적 모범을 보이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그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요 13:7)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요 13:8)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13:10)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사역의 모범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의 강화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족의 행위로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셨다.

[거룩한 교제로의 초청]

(요 13:10)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받은 신자에게도 죄를 자백하는 삶이 요구된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의 의미— 속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완전하게 일어났지만, 자백(회개)을 통해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사권을 누릴 수 있다.

---

## 세족의 이차적 의미: 겸손과 섬김의 도덕적 모범을 보이심

(요 13:14~15)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상황: 누가 크냐는 다툼

(눅 22:24)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의 섬김의 절정--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 = 당연직 중]

(요 13:16~17)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 대접과 섬김을 받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당연직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고전 4:10~12)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사도는 자신의 비천함과 낮아짐을 사도됨의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모범을 그대로 따른다.

## 유다의 배신 예고(13:2,10~11,18)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13:10~11)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 13: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

## 주님은 왜 이것을 예고하시는가?

(요 13: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 1) 곧 낙심하고 흩어지게 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 2)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 3) '내가 그인 줄' =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출 3:14)
- 4) 가롯 유다의 회개를 위하여(26)

---

## 가롯 유다의 회개를 위하여

(요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 마지막 만찬에서의 배석

1.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았다.

(요 13: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 요한(19:23; 21:7,20)

2. 베드로는 예수님과 요한의 맞은 편에 앉았다?

(요 13: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3. 유다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았다?

(요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스라엘의 관습

1) 잔치를 청한 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자기 왼쪽에 앉게 한다.

주님은 이 날 저녁 유다를 당신의 왼쪽에 앉게 하셨고, 이것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일이었을 것이다.

2) 떡을 찢어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호의의 표시였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신다.

## 결과

(요 13: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 13: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나, 상황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

(요 13: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 영광의 시간이 왔다!

(요 13:31~32)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 “그가 나간 후에”

레슬리 뉴비긴, “예수님 편에서 하실 십자가에 대한 순종의 행위는 유다가 방을 나가는 순간에 완수된다. 따라서 이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인데,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동시에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찰나다.”

## 다락방 강화/설교가 시작되다(13:31~16:33)

유다가 나간 후, 주님은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깊이 다루신다.

### ‘영광’

[영광의 시제]

1. 과거시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 유다가 나간 후로,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2. 미래시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 부활과 승천으로 인하여 받으실 장래의 영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심]

1.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어나는데, 그 순종의 최절정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이다.

2. 성부 하나님께서 이로써 영광을 받으셨다면,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텐데, 그것은 순종 이후 즉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다.

3. 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영원히 서로에게 쏟아 부으시고 영원히 쏟아 받으시는 영광이다.

4. 인자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최고의 계사다.

•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롬 3:25~26) 거룩과(합 1:13), 신실하심과 사랑을(롬 5:8)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 그러므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 새계명: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새계명을 주신 상황

1.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다.

→ 주님은 참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2.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36)
  - “작은 자들아”(33): 주님의 애정어린 호칭
  -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36): 주님의 구속사역은 제자들의 도움이나 협조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님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일이다.
  - 베드로의 부인 예고(38): 주님의 이 언급은 세계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다.
  
3. 제자들에게 주시는 계명
  -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감당할 수 있는 계명이다.
  - (요일 4:7~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 인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계명
  - 베드로의 말대로, 너희의 의지대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 (요 15:5)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세계명의 의미, 기준, 원천

### 왜 세계명인가?

(레 19:18)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새언약의 질서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계명이라는 뜻에서 세계명이다.

(요 13:34)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로운 높은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다.

### 새로운 높은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이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당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사랑이며, 제자들이 주님이 앉아계신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언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저녁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사랑의 이야기다. 주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주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 그런데도 큰 소리만 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세계명은 버림받고, 배신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 새로운 원천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롬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거듭나서 성령이 그안에 내주하시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들만이 새계명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을 가진 자들이다.

---

## 제자의 표지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존 맥아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와 권리를 주셨다.”

프랜시스 웨퍼, “그리스도인의 서로 사랑은 기독교의 최후변증이다.”

새계명은,

1.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다.

C.S.루이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 받을만한 자격을 가지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2. 새계명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3. 다윗과 요나단들의 공동체

(삼상 18:1,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 오늘의 적용

- 도덕과 복음을 혼동하지 말라.
-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새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